

비문학 완전 정복 시스템

은둔설계자의

# 비문학 독해공학

- 읽는 좀비에서 짓는 설계자로 독해의 OS를 바꾸다 -

讀解工學

전범진 저

[ 결속구조 ] [ T-R 압착 ] [ 8대 설계도 ]

[ 오답 요격 ] [ 수능 국어 ]

**T1** → R1=T2 → R2=T3 → **뺏** → **Final R**

지문은 읽는 대상이 아니라  
해체하고 재조립해야 할 설계도다.

동적독해 시리즈 전권 구성

**VOL.01** 비문학 독해공학 ★

**VOL.02** 비문학 독해공학 워크북

**VOL.03** 문장해부학

**VOL.04** 요약이 독해다

**VOL.05** 문학해부학

**VOL.06** 문학해부학 워크북



## 저자 소개

# 전범진

국어·논술 강사로 20여 년을 보냈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지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들이 틀리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읽는 방법이 없어서였다.

현장에서 통용되는 방법론들을 가르치면서도 내내 불편했다. 지문이 어려워질수록 그 방법들은 하나씩 부러졌다. 어떤 기술도 텍스트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했다. 학생들이 감에 의존하는 것이 선생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퇴 후 집필에 전념하면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했다. 지문을 더 선명하게, 더 구조적으로, 더 재현 가능하게 분석할 방법은 없는가. 텍스트 언어학의 결속 이론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고, 강의실에서의 수십만 시간이 그 이론을 수험 현장의 언어로 번역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 책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다. 요행을 가르치지 않는다. 감을 기르라고 말하지 않는다.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구조를 해체하는 손을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유일한 목표다.

---

*"지문은 읽는 대상이 아니라, 해체하고 재조립해야 할 설계도다."*

— 은둔설계자

© 2025 전범진.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복사·전재·전송·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목 차

비문학 독해공학 · VOL.01

---

Preface	프롤로그: 은둔설계자의 선언	P3
Ch.0	진입 — 이 책의 지도	P6
P A R T I 결속 공학 · Cohesion Engineering		
<hr/>		
01	결속구조: 블럭의 흠을 찾아서	P12
	Cohesive Devices · 어휘 · 지시대용 · 접속어 · 생략	
02	결속성: 블럭 둘의 단단한 결합	P32
	Coherence · 의미의 연결성 · 계층구조 · 스키마	
03	부품과 조립: 흠문장에서 이어진 문장으로	P49
	Sentence Engineering · 안은문장 해체 · 이음부 · 4대 엔진	
04	문단 결속 공정: 모듈과 성벽	P63
	Paragraph Module · 정보의 전이 · T-R 압착 ·	
P A R T II 설계 공학 · Structural Engineering		
<hr/>		
05	요새 설계: 전체 지문 조감도	P90
	Macro Structure · 3대 압착 모드 · 기승전결 · 문단 보직론	
06	문단 전개 공학: T-R 결속의 실전 엔진	P109
	T-R Flow Engine · 연쇄형 · 집중형 · 분기형 · 앵커링	
P A R T III 요격 공학 · Intercept Engineering		
<hr/>		
07	표준 설계 시뮬레이션 (Basic)	P138
	8 Blueprint Basic · 과정형 · 구성요소형 · 대립형 · 변천형	
08	심화 요새 공략론 (Advanced)	P154
	8 Blueprint Advanced · 문제해결형 · 원리응용형 · 전제확장형 · 통합형	
09	오답 요격 시스템	P184
	The Interceptor · 만연체 해체 · 숨은 주어 · 7대 특수 문장군	
10	승전보: 독해공학의 실전 운용	P210
	Final Stage · 전술적 평정심 · 무의식적 사출 · 최종 소거술	
<hr/>		
Appendix	에필로그 · 제작 후기 · 참고문헌	P215

## ◆ 1. 당신의 무기는 왜 녹슬었는가?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 당신이 절대법칙으로 여기던 두 가지 가짜 무기를 버려야 한다.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배신할 소모품들이다.

### 1.1 '낙서'식 구조 독해 (도식화의 함정)

지문의 옆에 무의미하게 동그라미, 세모, 화살표를 그리며 시각화 하는 방식이다. 겉보기엔 그럴듯한 설계도처럼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다.

**❶ 설계자의 비판:** 이는 건축물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벽에 낙서를 하는 것과 같다. 문장 사이의 물리적 연결부인 결속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어대는 화살표는 실전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복잡한 지문을 만나면 당신의 그림은 가장 먼저 엉망이 될 것이다.

### 1.2 '요행'에 의존하는 읽기 (배경지식과 감의 함정)

아는 내용이 나오길 기도하거나, 문장의 분위기로 답을 고르는 방식이다.

**❶ 설계자의 비판:** 설계도가 없는 현장에서 '운'에 기대어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 출제자는 당신이 가진 어설픈 배경지식을 비트는 방식으로 결속성을 파괴한 오답을 만든다. 당신의 '감'이 좋아질수록 출제자의 함정은 더 깊어진다. 설계자는 지식에 기대지 않는다. 오직 부품의 배치만을 믿을 뿐이다.



## ❶ 설계자의 결론: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기존의 방법론들은 지문을 '어떻게 잘 읽을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나는 지문을 '어떻게 정복할 시스템을 갖출까'를 고민한다. 파편화된 스킬(Skill)은 지문이 어려워지면 부러진다. 하지만 텍스트 언어학의 결속성이라는 원리에 기반한 시스템(System)은 어떤 지문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 녹슨 무기들을 버리고, 은둔설계자가 제안하는 공학적 독해로 갈아타라! 여기 텍스트 언어학의 이론을 레고 블럭 조립의 원리로 재탄생시킨 비책이 있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 ◆ 2. 은둔설계자의 선언: 당신의 읽기는 왜 무너지는가?

당신은 지금껏 지문을 '읽어' 왔을 것이다. 눈동자로 활자를 쫓고, 머릿속으로 내용을 요약하며,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긋는 행위. 안타깝게도 그것은 독해가 아니라 '표류'에 가깝다. 정보라는 파도에 휩쓸려 출제자가 쳐 놓은 그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행위 말이다.

나는 오랫동안 은둔하며 텍스트라는 거대한 기계의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수만 개의 문장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견고한 성벽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결속구조들로 이어져 있는지를 수사했다. 그리고 깨달

있다. 지문은 읽는 대상이 아니라, 해체하고 재조립해야 할 설계도라는 것을!

이 책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독해 운영체제(OS)'를 설치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문장을 읽는 대신 '부품의 돌기(결속구조)'를 찾을 것이며, 문맥을 파악하는 대신 '논리 시멘트(결속성)'의 농도를 측정할 것이다. 텍스트의 숲에서 길을 잃는 대신, '8대 설계도'라는 조감도를 펼쳐 지문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은둔설계자'라 부른다. 사유의 공장에서 오직 텍스트의 해체와 재건만을 연구해온 결과물들을 이제 당신의 손에 쥐여주려 한다.

준비되었는가? 활자의 지옥에서 설계자의 천국으로 접속할 시간이다. 당신의 손에 들린 펜은 이제 필기구가 아니라, 지문을 해체할 설계용 메스다!

## Ⅱ 0장. 진입: 이 책의 지도

*"지도 없이 미로를 가르치는 선생은 없다. 하지만 지도 없이 독해를 가르치는 책은 넘쳐난다." — 은둔설계자*

### 0.1 3층위 조감도

이 책은 세 개의 층위로 구성됩니다.

1층위 — 문장 (3장): 문장 내부의 부품을 해체합니다.

2층위 — 문단 (1·4·5·6장): T-R 압착으로 흐름을 압축합니다.

3층위 — 지문 (7·8장): 8대 설계도로 전체 구조를 판별합니다.

이 세 층위가 통합될 때 오답 요격이 가능해집니다 (9장). 수험생이 막히는 지점은 항상 세 층위 중 하나가 빠진 곳입니다.

### 0.2 T-R 압착 30초 체감

다음 두 문장을 읽으십시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T-R 압착을 적용합니다.

T: 기준금리 인상 → R: 대출금리 상승

R이 다음 문장의 T가 됩니다. 이것이 T-R 압착의 핵심입니다. 긴 지문도 이 사슬을 따라가면 단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합니다.

### 0.3 8대 설계도 한눈에

지문의 거시구조는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제1도면	과정형	- 시간 순서·단계·원인-결과
제2도면	구성요소형	- 전체-부분, 분류, 나열
제3도면	대립형	- 두 관점·이론·대상의 대조
제4도면	역사적 변천형	- 시대·기술·이론의 변화
제5도면	문제해결형	- 문제 → 원인 분석 → 해결책
제6도면	원리응용형	- 원리·법칙 → 사례 적용
제7도면	전제확장형	- 전제·가정 → 논증 전개
제8도면	다각적 관점 통합형	- 동일 질문에 복수 관점

### 0.4 예고편: 교수도 20분 걸린 지문을 지금 해체한다

2025년 11월, 수능이 끝나고 며칠 뒤 교육계가 술렁였습니다. 포항공대 교수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지문, 나도 이해하는 데 20분 넘게 걸렸다."

그 지문이 바로 2026학년도 수능 14~17번 —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입니다. 먼저 지문 전문을 읽으십시오.

#### [2026학년도 수능 국어 14~17번]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른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

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읽으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운이 좋거나, 철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이제 이 지문을 해체합니다. 이 책에서 배울 도구들로.

### 🔍 1층위 — 뼈대 해체 (3장 도구)

첫 문단 핵심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가두기 적용 →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전체가 수식어 덩어리입니다. 남은 뼈대:

견해는 → [영혼이 시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T: 칸트 이전의 견해 / R: 영혼의 지속이 인격의 동일성. 0.1초만에 이렇게 읽혔어야 합니다.

## 🔍 2층위 — T-R 압착 (1장 도구)

지문 전체의 T-R 사슬을 4단계로 압착합니다.

칸트 이전:	T: 영혼의 지속	→	R: 인격의 동일성이 성립
칸트:	T: 자기의식	→	R: 영혼 실재를 보장하지 않음
	T: 칸트의 대안	→	R: 동일 인격이라는 가정 선행 필요
스트로슨:	T: 칸트의 가정	→	R: 철학적 상상에 불과
	T: 스트로슨 대안	→	R: 신체+경험이 통시적 동일성 뒷받침
롱게네스:	T: 스트로슨 주장	→	R: 자아 없이는 경험적 인식 자체 불가
	T: 롱게네스 결론	→	R: 인격 동일성 기준 =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

최종 압착: [인격 동일성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단일 질문에 대한 4단계 관점 변천]. 이 압착이 보이는 순간, 14~17번 문제는 지문 재독 없이 해당 위치로 곧장 들어갑니다.

## 🔍 3층위 — 설계도 판별 (5~6장 도구)

이 지문은 제8도면: 다각적 관점 통합형입니다. 네 관점이 갈라지는 핵심 축:

- ① 인격 동일성의 근거: 영혼 (칸트 이전) vs. 가정 (칸트) vs. 신체+경험 (스트로슨·롱게네스)
- ② 자기의식의 위상: 인식의 조건 (칸트) vs. 경험의 산물 (스트로슨) vs. 경험의 전제 (롱게네스)
- ③ 신체의 역할: 칸트 (간과) vs. 스트로슨 (복합체) vs. 롱게네스 (동일성의 기준)

이 갈림길을 미리 그려두면, 선택지에서 관점을 교체하거나 뒤바꿔 놓은 오답이 즉시 탐지됩니다.

## 🔍 예상 오답 요약 (8장 도구)

17번 ③번 선택지: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T-R 복원 — 칸트 이전 견해의 R: 영혼(생각하는 나)의 지속이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

갑의 주장("보장하지 않는다")과 정반대. 따라서 칸트 이전 견해에 의하면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

→ ③ 정답. 판단 소요: 10초.

## 🗨️ 설계자의 선언

지금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이 분석에서 생소한 단어들 — T-R 압착, 결속구조, 8대 설계도, 오답 요격 — 은 이 책에서 하나씩 무기로 만들 것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이 페이지로 돌아오십시오. 그때 이 지문은 교수도 20분 걸린 지문이 아닙니다. 설계자에게는 3분짜리 지문입니다. 이제 1장으로 갑니다.

PART I

# 결속 공학

Cohesion Engineering

Ch.01 ~ Ch.04

## 🏠 제1장 결속구조: 블록의 홈을 찾아서

📖 1~4장 언어: '레고 공학' — 블록·이음부·조립은 텍스트 결속 장치의 비유입니다.

"부분이 전체 속에 존재하듯, 전체는 부분 속에 존재한다."

—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 설계자의 해석: 문장 하나, 단어 하나라는 '부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블록의 홈(결속구조) 안에 글 전체의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것을 정밀하게 보는 자만이 거대한 성체를 이해할 자격을 얻습니다.

[공정 가이드] 독해의 단위와 블록의 결합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뇌 속에 이 조감도를 먼저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텍스트의 단위들은 블록 조립의 단계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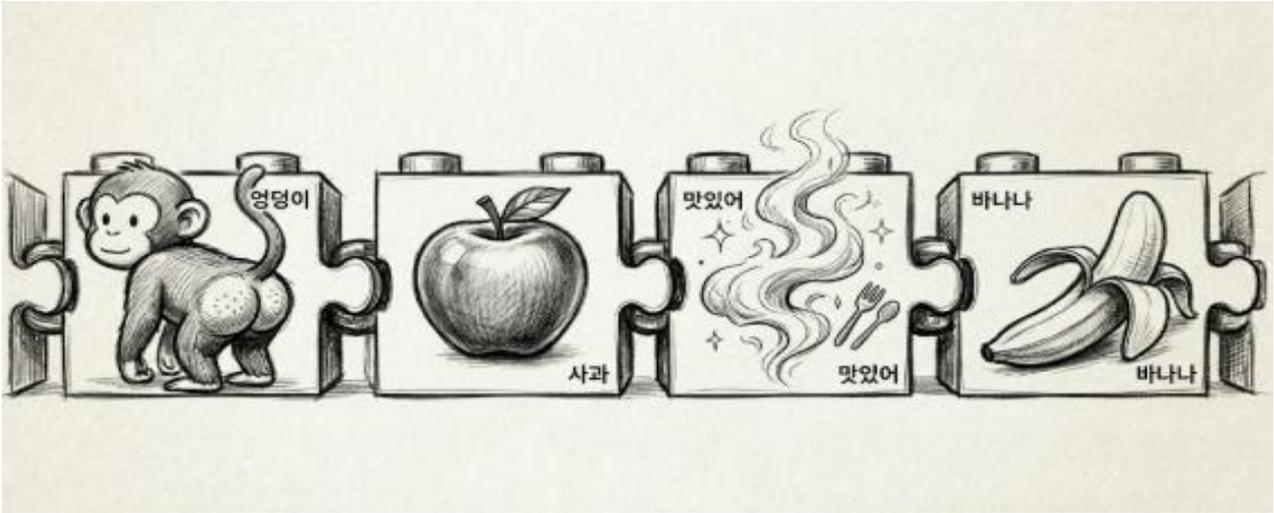
### 🏗️ 독해 단위와 블록 조립의 단계

독해의 단위	블록의 단계
한 문장	최소 블록 (Unit)
문장과 문장	블록의 결합 (Module)
문단	정보의 벽 (Wall)
전체 글	성체 (Castle)

우리가 1장에서 배우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블럭'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블럭의 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자는 결코 견고한 성벽을 세울 수 없습니다.

◆ 1. 결속구조: 연쇄의 사슬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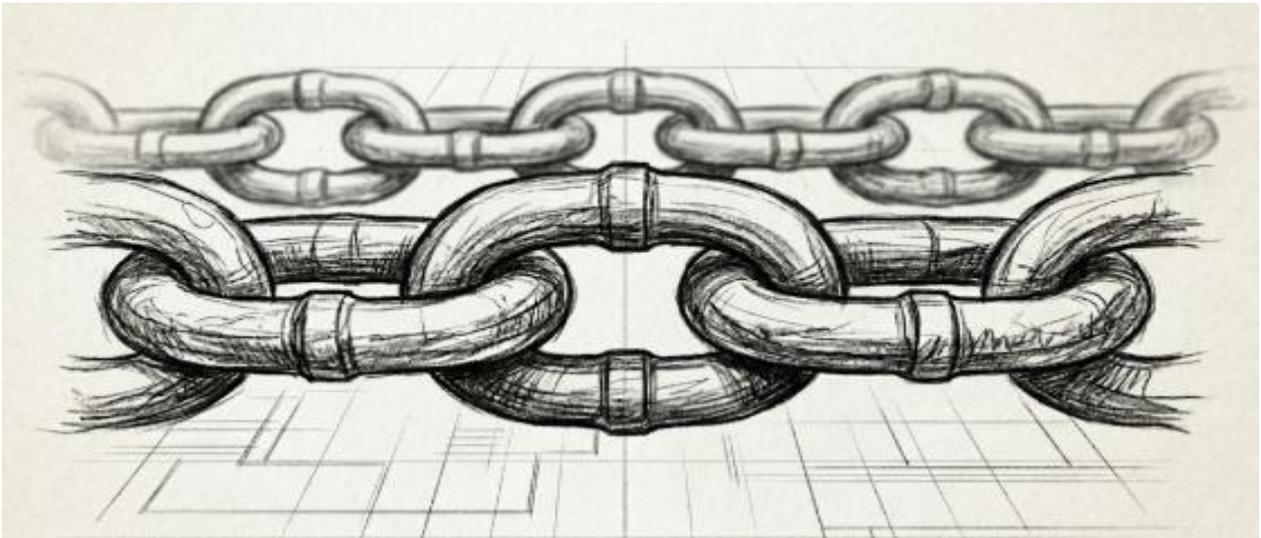
우리는 지문이라는 성벽을 해체하기 전, 텍스트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익숙한 동요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 빨간 건 사과 → 사과는 맛있어 → 맛있는 건 바나나...”

이 텍스트(말 덩어리)가 하나의 성벽처럼 유지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부품 결합’ 때문입니다.

- 메커니즘: 앞 문장의 서술어(빨개)가 다음 문장의 주어(빨간 건)로 옮겨갑니다.
- 공학적 해석: 이는 앞 블럭 돌기가 다음 블럭의 구멍에 완벽하게 결합되는 것과 같습니다. 독자는 ‘빨개’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다음 문장에서 ‘빨간 것’이 나올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의 결속구조입니다.



“언어의 결속구조는 연쇄적 꼬리 물기입니다.”

언어의 결속구조는 쇠사슬의 연결 부분과 같습니다. 쇠사슬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고리와 고리가 겹쳐지는 부분이 단단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연쇄’란 이처럼 중첩되어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텍스트를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네 개의 강력한 연쇄 고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고리들은 지문이라는 거대한 설계도를 지탱하는 핵심 부품들입니다.

- 1.어휘 (반복되는 블록)
- 2.지시어와 대용어 (앞 블록을 뉘아채는 갈고리)
- 3.접속어 (조립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
- 4.생략 (숨겨진 홈)

그럼, 한 편의 글이 어떻게 이 고리들을 통해 연쇄를 만드는지 구체적인 공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1.1 어휘: 블록의 규격과 배치 패턴

"관찰은 모든 지식의 출발이다. 대상을 그저 바라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의 차이는 패턴을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 로버트 루트번스타인(Robert Root-Bernstein)

❶ 설계자의 해석: 텍스트라는 성벽을 이루는 어휘들은 저마다 고유한 '규격'과 '배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들 사이의 상하 관계와 대칭 관계를 관찰하십시오. 그 패턴을 읽어내는 순간 지문의 뼈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 [공정 01] 동일 규격의 배치: 반복과 유의어

핵심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의미가 같은 유의어를 배치하여 논리의 사슬을 잇는 공정입니다.

- 사례: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지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 설계자의 시선: '정보'라는 파란 블록이 놓였고, 이어서 '지식 데이터'라는 똑같은 파란색 블록이 놓였습니다. 겉모양은 다르지만 규격(의미)이 같으므로 하나로 묶어 처리합니다.

### [공정 02] 대칭 규격의 배치: 반의어(대립 구조)

성벽의 한쪽 면과 반대쪽 면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글쓴이는 반대되는 개념을 배치하여 논리의 선명도를 높입니다.

- 사례: "디지털 방식은 불연속적 신호를 다루지만, 아날로그 방식은 연속적인 물리량을 측정한다."
- 설계자의 시선: '디지털' 블록과 '아날로그' 블록이 서로 등지고 배치되었습니다. 이 지점부터 지문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뉩니다. 한쪽 블록의 특징을 알면 반대쪽은 자동으로 설계됩니다.

[공정 03] 계층 규격의 배치: 상하의어(포괄 구조)

블럭의 크기가 다른 경우입니다. 상위어라는 커다란 판 아래에 하위어라는 작은 블럭들이 박히는 구조입니다.

· 사례: "정부는 다양한 조세 제도를 운용한다. 대표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이에 해당한다."

· 설계자의 시선: '조세'라는 거대한 밑판(상위어)이 깔렸고, 그 위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라는 작은 부품(하위어)들이 조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세'라는 테두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❶ 설계자의 검수 지침: "어휘를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블럭은 앞의 것과 같은 색인가, 반대편인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설계자의 관찰법입니다."

## 1.2 지시와 대응: 앞 블록을 낚아채는 갈고리

"좋은 표기 체계는 뇌에서 불필요한 작업을 덜어냄으로써 더 고차원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신을 해방시킨다." —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❶ 설계자의 해석: '이것'이나 '해당 현상' 같은 짧은 단어(기호) 안에는 앞서 설명한 거대한 정보의 덩어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는 이 작은 기호를 만났을 때 귀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실체를 복원해내어 설계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공정 01] 지시(Reference): 레이저 포인터로 지목하기

지시는 앞선 블록을 직접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단어 자체에는 실체가 없으므로, 지목된 대상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 사례: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는 현재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비행체다."

· 설계자의 시선: '이것'이라는 투명한 블록이 놓였습니다. 즉시 앞 문장의 '보이저 1호'에 레이저 포인터를 쏘십시오. '이것 = 보이저 1호'라고 머릿속에서 등호를 만드는 순간 결합이 완료됩니다.

[공정 02] 대응(Substitution): 규격은 같고 이름만 바뀐 새 블록

대응은 앞선 블록과 의미적 규격은 같지만, 더 일반적이거나 요약된 이름표를 가진 새 블록으로 갈아 끼우는 공정입니다.

· 사례: "정부는 새로운 양자 암호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보안 수준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설계자의 시선: '이러한 기술'이라는 갈고리가 앞의 '양자 암호 체계'를 낚아챘습니다. 글쓰이는 구체적인 이름을 반복하는 대신, '이러한'이라는 부품을 사용해 '기술'이라는 더 넓은 범위의 새 블록으로 부품을 교체하며 논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 설계자의 팁: "지시와 대응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

·지시 (고정 핀): '이것'과 같이 독자의 시선을 과거의 지점으로 되돌려 정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응 (연결 경첩): '이러한 ~'과 같이 과거의 정보를 일반화하여 다음 단계(요약/확장)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역할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식별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 가 정보를 어떻게 요약하고 가공해 나가는지 그 공정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 1.3 접속어: 조립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의 세기가 아니라 돛의 방향이다." — 짐 론(Jim Rohn)

❶ 설계자의 해석: 지문에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량(바람)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독해라는 항해에서 여러분의 배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접속어라는 [돛]의 방향입니다. '그러나'라는 돛을 펼쳐 방향을 틀 것인지, '그러므로'라는 돛을 올려 속도를 낼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돛의 각도를 읽는 자만이 텍스트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공정 01] 돛을 올리고 순항하기: 순접(그리고, 게다가, 뿐만 아니라)

앞선 설계의 방향을 유지하며 정보를 누적하는 공정입니다. 배가 흔들림 없이 직진하며 추진력을 얻는 단계입니다.

· 사례: "태양광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다. 게다가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다."

· 설계자의 시선: 돛의 방향에 변화가 없습니다. '탄소 없음' 블록 옆에 '저비용' 블록을 나란히 쌓으십시오. 정보가 같은 방향으로 누적되며 [장점]이라는 거대한 모듈을 형성합니다.

[공정 02] 돛의 각도를 꺾기: 역접(하지만, 그러나, 반면)

항로를 180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공정입니다. 작가는 이 돛의 전환을 통해 설계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 사례: "인공지능은 정밀한 진단을 돕는다. 하지만 최종 판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인간의 몫이다."

· 설계자의 시선: 돛이 급격히 회전했습니다. '기술적 편의'라는 파란 블록 진영에서 '윤리적 책임'이라는 빨간 블록 진영으로 항로가 전환되었습니다. 출제자는 주로 이 돛이 꺾이는 지점에서 항로 이탈 여부를 묻는 문제를 냅니다.

[공정 03] 목적지에 닿을 내리기: 인과(따라서, 그러므로, 결국)

여러 정보를 경유하여 마침내 설계자가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공정입니다.

· 사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물류비도 올랐다. 따라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 설계자의 시선: 앞선 블록들이 힘을 모아 '가격 인상'이라는 최종 결론 블록을 밀어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작가가 공들여 설계한 메인 타워이자, 향해의 종착지입니다.

## 0 설계자의 결론

"접속어를 단순히 '글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보의 [벡터(방향과 크기)]입니다. 뜻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엉뚱한 섬(오답)에 상륙하게 됩니다. 문장을 읽기 전, 접속어라는 뜻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 💡 접속어 분류 요약

분류	기능 (앞뒤 관계)	대표 접속어
순접	순리대로 이어짐	그리고, 그리하여
역접	반대/대조	그러나, 하지만
인과	원인과 결과	그래서, 따라서
선택	나열 혹은 선택	또는, 아니면, 및
전환	화제 바꿈	그런데, 한편
첨가	내용 덧붙임	게다가, 또한
요약	다시 설명/요약	즉, 다시 말해

## 1.4 생략: 숨겨진 홈의 역설계

"나는 단 하나의 뼈 조각만으로도 그것이 어떤 동물의 것인지, 그 동물의 전체 모습이 어떠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다." — 조르주 퀴비에(Georges Cuvier)

❶ 설계자의 해석: 숙련된 작가는 독자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불필요한 블록'을 과감히 생략합니다. 하지만 설계도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빈 공간(생략)이 앞선 블록과 어떤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역추적하십시오. 깎여 나간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당연한 논리적 부품]을 복원하는 것이 역설계의 핵심입니다.

### [공정 01] 주어의 생략: 반복되는 밑판 제거

동일한 주어가 연속될 때, 도면의 간결함을 위해 반복되는 주어 블록을 빼버리는 공정입니다.

- 사례: "철학자들은 진리를 탐구한다. [생략]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기도 한다."
- 설계자의 복원: 두 번째 문장에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도전하는 것일까요? 즉시 앞 문장의 주어인 '철학자들' 블록을 복제하여 빈 홈에 끼워 넣으십시오. 주어를 놓치면 서술어(도전하다)는 허공에 뜨게 됩니다.

### [공정 02] 논리적 전제의 생략: 당연한 연결 시멘트 생략

"A이다. 그러므로 C이다."라고 말할 때, 글쓴이는 그 사이의 뻘한 징검다리인 'B'를 생략하곤 합니다.

- 사례: "이 제품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었다. [생략] 따라서 가격이 다소 비쌀 수밖에 없다."
- 설계자의 복원: '친환경 소재'와 '비싼 가격' 사이에는 [친환경 소재는 생산 단가가 높다]라는 [전제 블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설계자의 검수: 이 숨겨진 시멘트를 찾아낼 때 비로소 '친환경 → (고비용) → 비싼 가격'이라는 완벽한 논리 사슬이 완성됩니다.

[공정 03] 비교 대상의 생략: 대칭 불력의 일부분 생략

두 대상을 비교할 때, 한쪽의 특징을 말하면 반대쪽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보고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반면 아날로그 신호는 [생략] 물리량을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설계자의 복원: 아날로그 신호가 '어떤 값'을 갖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이라는 방향타와 '디지털=불연속'이라는 정보를 통해, 우리는 아날로그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불력을 역설계해낼 수 있습니다.

## ❶ 설계자의 결론

"생략된 부분은 작가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는 알지?'라고 묻는 것이죠. 설계자는 그 신뢰에 응답해야 합니다. 비어 있는 공간을 보며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의 뇌 속에 저장된 앞선 불력들과 상식을 동원해 그 빈자리를 메우십시오. 보이지 않는 뼈대를 복원할 때, 지문이라는 성벽은 비로소 완벽한 형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무 의심 없이 불렀던 '올챙이와 개구리' 가사에는 사실 엄청난 수준의 생략 공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설계자의 눈으로 이 익숙한 가사의 빈틈을 메워봅시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생략 1] 뒷다리가 쭉!/[생략 2] 앞다리가 쭉!/[생략 3] 팔  
딱팔딱 개구리 됐네."

·복원 01 (주어): "뒷다리가 쭉!"에는 다리의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 문장의 '올챙이' 블록을 자동으로 가져와 빈 홈에 끼워 넣습니다. 만약 이 결속이 끊어진다면, 누구의 다리가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설계도가 됩니다.

·복원 02 (인과/순서): 두 사건 사이에는 연결어가 없지만, 우리는 뒷다리가 나온 후에 앞다리가 나왔다는 시간적 인과 시멘트를 스스로 발라 넣습니다. 그래야만 발생의 공정 순서가 확정됩니다.